

TV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코로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광복70주년 인건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스설 40 여유만만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10 좋은 아침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필름 55 바른말 고운말	00 장사의 신-객주 2015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15 인간극장 스페셜 (동중, 아버지의 바다에 서다)	10 KBC 생활뉴스 30 닥터365 35 인생활단 월드보이아간다
1	0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50 야생일기(재)	00 보도의 보물 100선 20 세상발견 유레카
2	00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MBC 나눈 특집 다큐 (특별한 도전 신고합니다)	00 2015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 1일
3	00 직인직설	55 토티생활제초	05 후투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채상 위기	00 MBC 뉴스 10 마법 천자문 40 헬로키즈 바이걸스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100세 시대, 이제는 건강복지다(재)	00 TV 유치원 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40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보기획 (딱 내같은 딸)(재)
5	5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도 그래픽	00 위기탈출 넘버원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바이클론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생생정보1	10 광주 MBC 창사 51주년 다들아 삽니다 2부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구원의 밤(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밤	50 일일 드라마 (다 잘될 거야)	10 시사타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들어온 황금복)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2TV 생생정보2 55 비타민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짜리 세상에 이련일이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명견만리 55 송타	00 장사의 신-객주2015	00 2TV 스페셜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11	00 구원의 밤	00 KBS 뉴스라인 40 기록유산, 인류 문명의 기억	10 해피 투게더	15 지기야
12	40 카톡쇼 X	30 아시아 영화의 힘 (재6편 한국)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	14:50 빠빠에 친구	18:4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3
05:30 건강한 아침	09:40 달라졌어요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8:45 스포맨드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마야의 모험	18:5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4
06:10 세계의 눈(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9:00 갤럭시 프로젝트
07:00 지파이티스(재)	11:10 다큐 오늘	15:45 꼬마와 친구들	19:3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1:20 세계대미기행 (재)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재)	19:50 사선에서
07:45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0:40 다큐오늘
08:00 당동명 유치원 1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6:45 당동명 유치원1~3(재)	20:50 세계대미기행 (신짜이! 매혹의 베트남)
08:10 통통가족	13:05 역사채널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1:30 한국기행 (우리가 산골로 간 까닭은)
08:15 그림을 그려요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7:45 로보카 폴리(재)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8:20 당동명 유치원 2	13:40 사이먼 지구의 자력평가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1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8:30 두다다콩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8:05 출동 슈퍼왕스	23:35 글로벌 가족정하기
08:40 당동명 유치원 3	14:00 곤	18:2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2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30 캐니벌	18:25 내 친구 아저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II-읽어보기>	12:15 올림포스 <국어II-읽어보기>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듣기>
01:40 " <화통과 통계>	14:0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국어B>
02:30 "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포스 <화통과 통계>
03:20 " <수학II>	15:40 " <기하와 벡터>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05:00 뉴탐스런 <화학I>	
06:00 " <지구과학I>	18:10 2016 N제 <수학B>
06:40 " <세계지리>	19:20 " <세계사>
07:30 " <법과 정치>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2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20:50 2016 인터넷 수능
09:10 " <이은주의 수학II>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10:1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영어>	21:50 " <문학 B형>
11:00 " <수학B>	22:30 박복의 이슈를 만나는 경제

EBS플러스2

07:00 원산지 관리자 시험대비강좌	15:10 어휘량 교과서 한자어를 찾아라
07:30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시험대비 강좌	15:20 만점왕 <과학3-2>
08:30 매경 TEST 시험대비강좌	15:50 " <과학4-2>
09:00 출제순 수학 EBS MATH	16:20 " <과학5-2>
09:10 TV중학 <국어(1)(2)>	16:50 " <과학6-2>
09:50 " <영어>	17:20 만점왕 평가문제집 <전과목 6-1>
10:30 " <도덕 2>	18:00 TV중학 <수학3(하)>
11:10 " <국어(3)(4)>	18:40 " <영어 3>
11:50 " <영어 2>	19:20 필독중학 국어 <소설>
12:30 EBS 특강	20:00 EBS 인문학특강
13:00 데일리 시술형 수학	20:50 EBS 기획시리즈
13:10 등업산공 <사회1>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50 " <사회2>	22:00 등업산공 <역사2>
14:30 " <역사1>	22:40 " <과학3(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8일(음 8월 26일 丁巳)

子	48년생 반복될 때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60년생 가까운 지인의 도움이 가장 실용적임을 알자. 72년생 함께함이 가장 손쉬울 것이나, 84년생 무난하게 진행되면서 안정을 찾는다. 행운의 숫자 : 60, 07	午	42년생 비옥한 토양에서 안전하게 개화하는 형상이다. 54년생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66년생 지나치다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78년생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뜻밖의 판세로 전환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0, 77
丑	49년생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체를 아우르자. 61년생 의외의 현상이 나타나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73년생 집착은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한다. 85년생 무모함과 욕기는 확연히 구분돼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8, 91	未	43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것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나, 55년생 적기를 놓쳤다면 무용지물이 되리라. 67년생 성공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79년생 정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8, 71
寅	38년생 국면 전환이 효과적이다. 50년생 절차대로 행하는 게 무난할 것이다. 62년생 근본적인 원인부터 살펴, 74년생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자양분이 될 것이다. 86년생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니 충분히 감안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51, 88	申	44년생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생산적이다. 56년생 상대의 반응에 예의 주시해야 하느니라. 68년생 복합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부합해야만 될 것이다. 80년생 뜻밖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운사. 행운의 숫자 : 14, 35
卯	39년생 식상함을 거두고 새로움을 추구하라. 51년생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63년생 불협화음에 예상되나 길사로 전환될 수 있다. 75년생 적극적으로 이어야겠다. 87년생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낚시에 걸려드는 법이 아니라, 행운의 숫자 : 98, 95	酉	45년생 자기모순에 빠지던 헤어지지 못하리라. 57년생 부수적인 것은 버리고 핵심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69년생 습관적인 반복보다 창의적인 시도가 낫다. 81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 보면 귀중한 것을 잃는다. 행운의 숫자 : 97, 83
辰	40년생 성공의 길을 이끄는 열쇠가 보인다. 52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 하느니라. 64년생 해묵은 문제점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 76년생 공상 실행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8, 42	戌	46년생 진중하게 대하자. 58년생 직접적인 것에 집중함이 실용적이다. 70년생 주변의 여건과 조화를 이루어만 적절한 관세를 이루게 된다. 82년생 부수적인 면에서 파생되는 이익이 더 알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8, 94
巳	41년생 진흙탕 속에 묻힌 옥이 있을 것이니 찾아보라. 53년생 지나치면 역효과를 내기에 충분하다. 65년생 불연전하니 지금 판단하기는 이르다. 77년생 행운의 원천이 생길 것이니 활용하라. 행운의 숫자 : 43, 19	亥	47년생 양자를 비교해보면 즉시 알 수 있으리라. 59년생 기조는 불변하겠지만 규모가 커지리라. 71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이익이 시 모든 미련을 버려라. 83년생 과거의 인연이 좋은 기회로 연결시켜 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6, 5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 ☎010-9790-8237

“스무살 맞은 부산영화제
옳은 길 가도록 힘써야죠”

집행위원장 강수연 ... “내 꿈은 연기 잘하는 할머니 여배우”



강수연(49·사진)은 배우다. 우리 나이로 네 살 때 데뷔해 46년을 배우로 살았다. 스펀살 나이로 한국 여배우 최초로 3대 국제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요(자존심이라는 뜻으로 쓰인 속어)가 없나”는 영화 ‘베테랑’(감독 류승완) 속 대사가 강수연의 입에서 빌려온 말이라는 일화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런 배우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고로 올라선 국제영화제의 수장이 됐다. 성년을 맞은 해 큰 위기에 부딪힌 부산국제영화제가 대내외적 쇠신과 도약을 보여줘야 했을 때 그에게 공동 집행위원장 자리를 제의했고 그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많은 영화인이 놀라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내뿜었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다 끝나면 이용관(공동 집행)위원장한테 뭐라고 해야겠어요. (웃음) 개막식 때 마음고생을 가장 많이 했어요. 새벽까지 비바람이 몰아치는 해운대 바다를 보면서 한숨조차 쉬지 못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모조리 결핵돼 게스트들이 서울로 갔다가 KTX를 타고, 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어요. 제가 입고 있던 드레스도 다 젖었는데 초조한 마음에 젖었는데도 몰랐어요. 그래도 하늘이 도왔죠. 개막식 때가 되니 비가 잦아들었고 예상보다 많은 분이 제때 도착해 참석할 수 있었어요.”

눈코 뜰 새가 없었던 표현 외에는 달리 다른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지만, 20회를 맞은 부산영화제에 대한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비바람을 뚫고 우리 20주년을 축하해 주러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분이 와주셨다는 게 감사하죠. 오신 분들 모두 ‘아시아의 대표적 영화제’라고 말해요. 세계가 아시아 영화에 주목하는 시기에 부산영화제가 이렇게 있으니 모두 그 중요성을 알고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제 성장기를 거쳐 성년이 됐으니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죠.”

을 들으면 내가 받았을 때보다 더 기쁘요. 후배 전도연이 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을 때의 감동은 특히 컸어요.”

네 살 나이에 의식하지 못한 채로 들어선 배우로서의 길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강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운명 같은 거죠. 내 뜻으로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본질적인 고민을 한 건 고등학생 때였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연기밖에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중에서도 영화가 그렇게 좋았어요. 극장 가는 것도 설레고 촬영 현장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때부터 TV드라마 ‘여인천하’(2001)를 할 때까지 연극 한 편 빼고는 오로지 영화만 했어요.”

영화제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배우의 일을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그의 꿈은 그동안 수없이 강조해온 대로 여전히 “연기 잘하는 할머니 여배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원대한 목표인지 최근에 알았어요. 작품의 운도 있어야 하고 시대적 흐름과 맞아와야 하고 당연히 연기도 잘해야 하고 젊은 관객과 소통 문제가 없어야 하고... 더 좋은 배우가 되려면 공부도 필요하다는 것을 얼마 전에야 알았죠.”

이제 첫발을 디딘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서는 포부는 영화제의 미래를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이 모든 일의 시작이자 끝인 영화가 강수연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살아가면서 위로, 치유,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꿈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음악이 될 수도, 문학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영화라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영화로 인해 많이 공부하고 많이 치유하고 많이 꿈꿨어요. 많은 사람이 그 에 공감할 거라고 믿어요.”

“토크쇼·홈쇼핑 보며 화술 공부 했죠”

이선균, 영화 ‘성난 변호사’ 법정연기 도전



“법정에 가보니 굉장히 즐리더군요. 판사님이 80% 정도 얘기하시고... 마치 교회 예배시간 같았어요. 기본적으로는 목사님 설교를 생각하면서 탈변기인 김재중 씨의 토크쇼와 소비자를 잘 현혹하는 홈쇼핑을 보기도 했어요.”

배우 이선균(40·사진)은 8일 개봉하는 영화 ‘성난 변호사’에서 변호사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대중을 사로잡는 화술을 보며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분석했다”며 “악보를 그리듯이 연기 작전을 짰다”고 말했다. “배우마다 연기를 위해 노력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저는 대부분을 읽을 때 ‘왜’라는 질문과 분석을 많이 해요. 이번 영화는 긴 대사를 소화해야 하는 법정 장면이 많아 고민이 됐지만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이선균은 이번 영화를 연출한 허종호 감독과 20대를 같이 보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중) 동문이자 친구다. 허 감독은 이선균에게 영화를 같이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고, 이선균은 ‘부동산에 마실가듯’ 자주 사무실에 나가 허 감독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만큼 이번 영화는 이선균의 의견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반영된 작품이다. 극 중 “이기는 것이 정의”라는 그의 대사는 애초 대본에는 없던 내용이었지만 강렬한 대사가 필요하다는 그의 제안으로 나오게 됐다. “이번 영화는 심각한 법정영화라기보다는 어디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고 잘 버무린 대중적인 오락물에 가까워요. 추리, 코미디, 멜로, 액션, 반전 드라마 등 여러 재료를 어떻게 맞출까 하고 친근하게 버무려 두 시간을 빨리 흘러가게 하느니라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개봉해 345만명의 관객을 모은 ‘끝까지 간다’는 이선균의 연기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된 영화였다. 이 작품으로 그는 백상예술대상 남우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 “솔직히 ‘끝까지 간다’는 제 배우 생활의 전환점이 된 영화예요. 작품이 꼭 대중적인 사랑을 받으며 인정받아서가 아니라고요. 영화가 칸에도 초청되고 잘 나와서 자신은 있었는데 제가 선발투수 격으로 나온 영화라 부담이 컸었던 거예요. 초반에 예매율도 낮았고 저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다 보니 영화가 묻히는 것 같아 제작진에게 미안했어요.”

같은 영화가 손익분기점(BEP)을 넘기면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배우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잘해야겠구나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찍을 때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작업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는 상대연기자 한예중 후배인 여배우 김고은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제가 거의 끌고 가는 영화다 보니 여배우

캐스팅은 우정 출연이 아니면 힘든 상황이었어요. 시나리오를 수정해 여배우 역할을 키워야 한다고 감독님과 상의하기도 했죠. 고은이에게는 이번 영화를 ‘적극’이라고 생각하고 쉬어가라고 피요했어요.(웃음) 고은이가 여러 가지(여러 영화에) 많이 해줬더라고요(출연했더라고요).(웃음)”

그는 TV드라마 ‘파스타’에서 ‘버럭 셰프’로 큰 인기를 누리던 이래 까칠한 매력의 역할을 주로 맡았다. “그만큼 강하고 임팩트 있는 배역이 아니라 역올한 상황에 놓인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곤경에 처했는데 멋진 수는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제 연기의 포지셔닝이었어요. 비슷한 호흡, 일정한 패턴들이 보이고 읽힌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죠. 격정도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장르에 도전하려고요. ‘소중한 여인’이라는 제목의 누아르 멜로예요.”

이선균은 배우 전혜진과 7년 연애 끝에 2009년에 결혼, 현재 아들 둘을 두고 있다. “아내 혜진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였어요. 서로 연기에 대한 평가는 안해요. 가족이다 보니 연기를 객관적으로 못 보겠어요.(웃음) 잘하고 멋있고 대견스러워요. 영화 현장에 대한 즐거움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고요.”

이선균과 전혜진은 2013년 연극 ‘러브, 러브, 러브’에서 부부 로 출연했던 적이 있다. “혜진이는 참 좋은 배우예요. 한 영화에 같이 출연할 생각이 없어요. 매일 집에서 웃음 고문가 찍는데 굳이 뭐하러요.” /연합뉴스